

포르투 크로포트킨과 민중봉기 : 파리코뮌에서 광주 봉기까지

(2)

흑적기

광주 봉기

지난 2세기 동안, 1871년의 파리 코뮌과 1980년의 광주 민중 봉기라는 두 사건은 수천 명의 일반인들이 자발적인 능력으로 스스로를 다스린 독특한 봉화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두 도시 모두 비무장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재정립하려는 잘 무장된 군대의 존재에 맞서 도시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보유하였다. 수십만의 인민이 봉기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정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중 기관을 구성하였다. 해방의 기간 동안 범죄율이 급감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친밀감을 느꼈다.

파리와 광주에 있는 코뮌의 해방된 현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그렇기에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널리 전파된 신화와 모순된다. 오히려 이러한 해방의 순간 동안 시민들의 행동은 자치와 협력의 선천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엄청난 잔혹성과 부당성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정부의 무력이었지, 통치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가 자신의 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된 이후 광주에서의 사건들이 전개되었다. 박정희의 죽음이 가져다 준 행복감 속에서 학생들은 거대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지만 전두환 장군은 권력을 장악하고 시위가 계속되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 위협했다. 광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렀다. 미국의 승인을 얻어, 새 군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최전선에서 광주에 교훈을 주기 위해 가장 노련한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했다. 이들 부대는 광주에 도달한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18일 오전 열린 1차 대치에서는 특수 설계된 진압봉으로 무방비 상태의 학생들의 머리를 깨트렸다. 시위대가 안전을 위해 발버둥을 치자 공수부대원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한 무리의 군대가 각각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의 등을 짓밟고, 그의 얼굴을 발로 차곤 했다. 그들이 공격을 마쳤을 때, 그들 미트 소스에 담긴 옷 더미처럼 보였다.”(이재의 외,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p.46) 시위대는 트럭에 부러졌고, 거기서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때리고 발로 찼다. 밤이 되자 공수부대원들은 몇몇 대학에 병영을 차렸다.

학생들이 맞서 싸우자 군인들은 총검을 겨누고 수십 명을 더 체포했고, 그들 중 다수는 벌거벗겨졌고, 강간당했고, 더더욱 잔혹한 일을 당했다. 한 병사는 불참한 학생들에게 총검을 휘두르며 “이것은 내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인들의 젖가슴 40개를 베던 총검이다!”라고 외쳤다. 공수부대의 과잉반응에 전체 대중이 충격에 빠졌다. 공수부대원들은 통제 불능이 되어 사람들을 잔혹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경찰서 정보국장을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했다(이재의 외,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p.79).

심한 구타와 수백 명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다시 뭉쳤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다음날 시 전체가 봉기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시위대는 학생의 수를 적어보이게 할 정도로 불어났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27). 대중운동의 자발적 탄생은, 도시와 비도시의 전통적 분열을 초월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등, 냉담한 잔혹성에 다시 한 번 의지했다. 심지어 부상자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도 칼에 찔리고, 구타를 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다. 몇몇 경찰들은 몰래 포로를 풀어주려 했고 그들 역시 총검을 맞았다(이재의 외,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p.113). 많은 경찰들이 그저 집으로 돌아갔고, 경찰서장은 군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사람들은 돌, 몽둥이, 칼, 파이프, 쇠파이프, 망치로 18,000명의 전경과 3,000명 이상의 공수부대원들을 상대로 저항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도시는 침묵하기를 거부했다. 5월 20일, “투사회보”라는 신문이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공식 언론과 달리 정확한 소식을 제공했다. 오후 5시 50분, 5,000여 명의 군중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몰려들었다. 공수부대가 그들을 다시 몰아세우자 도로 위에 다시 연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경찰들을 군대와 더 갈라놓을 대표자들을 선발했다. 저녁이 되자 당시 인구가 70만 명인 도시에 20만 명 이상의 대오가 모였다. 거대한 군중은 노동자, 농부, 학생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9대의 버스와 200대가 넘는 택시들이 시내 쇼핑 지역인 금남로에서 대오를 선도했다. 다시 한 번 공수부대원들이 맹렬히 공격했고, 이번에는 온 도시가 반격했다. 밤사이에 승용차와 지프, 택시 등 차량들이 불이 붙은 채로 군대로 밀고 들어갔다. 군대는 거듭 공격했지만 저녁에는 민주광장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기차역에서는 많은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민주광장과 인접한 도청에서는 공수부대원들이 M-16으로 군중을 향해 무차별사격을 개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검열된 언론은 그 학살을 보도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기물파괴와 경미한 경찰행위에 대한 허위보도를 보도했다. 군대의 잔혹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심야뉴스마저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MBC 건물을 에워쌌다. 곧 방송국 경영진과 이를 지키는 군대가 후퇴하고, 군중은 안으로 밀려들었다. 방송 시설을 가동시킬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건물을 불태웠다. 군중들은 영리하게 표적을 선정했다.

“오전 1시에 시민들이 세무서로 몰려가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질렀다. 인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세금이 군대와 사람을 죽이고 때릴 무기 생산에 쓰였다는 이유였다. 경찰서와 다른 건물은 지키면서 방송국과 세무서에 불을 지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38)

세무서와 언론사 건물 2곳 외에 노동청과 도청 차고, 경찰 차량 16대가 불에 탔다. 새벽 4시쯤 기차역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는 격렬했다. 병사들은 다시 군중을 상대로 M-16을 사용했고, 전투에 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체 위에서 군대와 전투를 계속했다.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준 인민이 우세했고, 군대는 급하게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21일) 오전 9시, 금남로에는 다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공수부대와 대치했다. 한 소규모 단체는 “일부 사람들이 아시아자동차(군납업체)에 가서 차량을 압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를 행했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수에 맞추어 7대를 가져왔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오가면서, 곧 장갑차들을 포함한 350대의 차량이 민중의 손에 들어갔다. 이 차량을 몰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위자들은 민중들을 결집시켰고 또한 이웃 마을을 돌면서 반란을 확산시켰다. 몇몇 트럭들은 코카콜라 공장에서 빵과 음료수를 가져왔다. 협상가들은 군중 중에서 선발되어 군대로 향했다. 갑자기 총성이 이 분위기를 뚫고 들어왔고, 평화로운 합의에 대한 희망을 끝냈다. 10분 동안 군대는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이 대학살에서 수십 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

사람들은 재빨리 반응했다. 총격이 발생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경찰서가 무기를 압수당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 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예비군 병기고를 급습하여 두 개의 중심 지점에 집결했다. 화순 광부들의 도움으로 시위대는 다량의 다이너마이트와 기폭장치를 확보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43). 여성 섬유노동자들은 버스 7대로 나주로 가서 수백 개의 소총과 탄약을 확보하여 광주로 다시 가져왔다.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에서도 비슷한 무기 탈취가 일어났다. 이 운동은 화순, 나주, 함평, 영암, 강진, 무안, 해남, 목포 등 한국 남서부의 16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5·18 광주민주화운동』, p.164). 반란의 급속한 확산은 자치와 자주에 대한 인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였다. 일부 시위대는 봉기를 전주와 서울로 확산하기를 희망하며 출발했으나 고속도로와 도로, 철도를 봉쇄한 군대에 의해 퇴각 당했다. 광주로 향하던 화순군과 용광군의 무장 시위대는 군 헬기가 처리했다. 군이 언론을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여행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반란은 전국적인 봉기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에 존재했던 그 어떤 정권보다 더 민주적인 구조가 탄생했다. 광주공원과 유동분기점에서 모여 전투부대와 지도부를 구성했다. 기관총이 도청(군 지휘부가 있던 곳)에 실려 왔다. 오후 5시 30분이 되자 군대는 후퇴했고, 오후 8시에 되자 인

민들이 도시를 통제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비록 그들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무기는 군대의 무기에 비해 훨씬 열세였지만, 사람들의 용맹과 희생은 군대의 기술적 우월성보다 더 강력함을 증명했다. 자유 코핀은 6일간 지속되었다. 매일의 시민 집회에서는 수 년 동안 지속된 좌절과 일반인들의 깊은 열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시민 단체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행정, 즉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사회 행정을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파리 코핀이 100년 전에 파괴된 바로 그날인 5월 27일, 광주 코핀은 영웅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진압되었다. 1980년에 잔인하게 진압되었지만, 그 후 7년 동안 그들은 계속 투쟁했고, 1987년에 마침내 남한의 민주적인 선거 개혁을 쟁취하는 전국적인 봉기가 조직되었다.

전함 포템킨의 수병들과 마찬가지로 광주 민중들은 1894년 동학반란과 1929년 학생반란에서 1980년 봉기에 이르기까지 남한에 혁명의 도래를 거듭 예고했다. 파리 코핀이나 전함 포템킨처럼 광주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적(또는 프랑스적, 또는 러시아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다. 광주의 의미와 교훈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초기 혁명의 상징처럼 1980년 민중 봉기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가져왔다.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민주적 기본권이 억압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반란과 폭동의 물결이 그 지역을 변화시켰다. 유럽의 1989년 혁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유럽 중심주의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광주봉기 이후 6년 만에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가 타도되었다. 아퀴노와 김대중 미국에서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광주의 경험은 마닐라에서의 행동에 영감을 주었다. 아시아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사람들의 운동이 나타났다. 1987년 대만에서는 계엄령의 종결을 쟁취했다. 버마에서는 1988년 3월에 민중 운동이 폭발하여 학생들과 소수 민족들이 랑군 거리로 나왔다. 끔찍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네윈 대통령이 26년간의 통치 끝에 사임하도록 강요했다. 그 다음 해, 중국의 학생 운동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들의 외침을 활성화시켰지만, 천안문 광장에서 격추되고 그 후 그들은 몇 년 동안 쫓겼다. 네팔이 그 다음 차례였다. 1990년 4월부터 시작된 7주간의 시위는 국왕이 정부를 민주화하도록 강요했다. 그 다음 폭발을 경험한 나라는 태국으로, 1992년 5월 한 유력 야당 정치인의 20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군부가 거리 시위를 진압했을 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잔혹성 때문에 수신다 크라파운 장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은 “인민-권력 혁명”을 요구했고 수하르토를 전복시킬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대학에서 미국 특파원이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인민-권력의 구호는 공공 공간 점령의 전술적 혁신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차용되었다고 이야기되었다.

=

출처는 언제나 그렇듯 '아나키스트 연대'가 되겠음.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14676352>